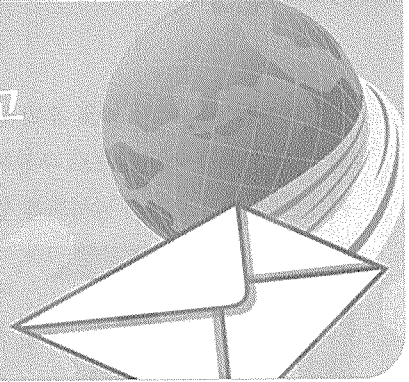


## 출장보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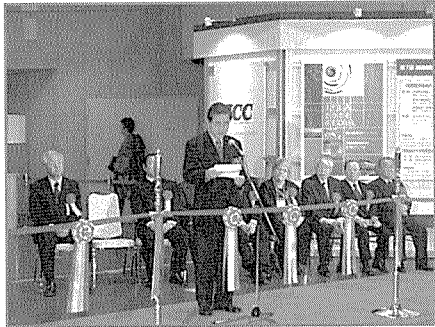
# 제7회 일본도서관총합전 참가보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우리 조직위원회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소재 요코하마 파시피코(Yokohama Pacifico)에서 개최된 제7회 일본도서관총합전(Library Fair & Forum 2005)에 홍보단을 파견하였다.

이번 일본도서관총합전에는 김태승 조직위원회 협력위원장, 유태형 조직위원회 국내협력위원, 조명준 직원과 통역 1인(천형, 룩카스코리아 대표)이 참가하여 2006서울WLIC를 홍보하고 일본 도서관인들과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축사를 하는 김태승 협력위원장〉

11월 30일 일본도서관총합전의 개회식에 참석한 김태승 협력위원장은 한국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축사 및 테이프 커팅을 하였다. 김태승 협력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06서울WLIC가 한-일 양국에 가지는 의미를 역설하고 서울대회에 일본 도서관 관계자들을 초대하였다. 이 자리에는 일본 내 도서관계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일본도서관계의 발전을 기원하고 협조를 약속하는 김태승 협력위원장의 축사에 감사를 표했다.



〈일본도서관협회를 방문한 조직위원회 대표단〉

12월 1일에는 일본도서관협회(JLA)를 방문하여 JLA 관계자 회의 및 JLA 국제교류위원회와의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들을 통해 일본 측에서는 서울대회에 일본 사서들이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도서관계 차원의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일본 내 도서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논문발표 참여, Pre / Post-Conference 등 서울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도서관총합전운영위원회 및 Japan Culture Corporation(JCC)와의 면담을 가지고 전시회 등 도서관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도서관총합전운영위원회 및 JCC 측은 일본 내 13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본 기업의 전시회 참가와 기업 참관단 구성 등 서울대회를 위한 사업계획을 활발히 기획, 진행하고 있었다.



〈2006서울WLIC 홍보부스의 모습〉



〈총합전 전시장 입구의 서울대회 로고〉

이 외에도 조직위원회에서는 총합전 기간 동안 전시장 내에 서울대회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영상물 상영, 홍보자료 및 기념품을 배포하였다. 서울대회 홍보부스를 찾는 일본 도서관인은 물론 관련 업체에 이르기까지 2006서울WLIC와 한국의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회 홍보부스에는 행사 마지막 날까지 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으며 도서관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일반 참가자 및 일부 언론들도 홍보부스에 들러 서울대회의 이모저모를 묻곤 하였다.

제7회 일본도서관총합전을 통해 일본에서도 서울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끄는 행사장 입구의 커다란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로고에서부터 서울대회에 대한 수많은 문의들이 그 증거였다. 이 같은 관심은 지금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

아 지역에 대한 홍보와 다방면에 걸친 국제협력·홍보 활동의 성과이며 앞으로도 원활한 상호 협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서울대회는 아직까지 국제 도서관계에서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화를 위한 좋은 계기이며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기업들이 세계로 무대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서울대회를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회를 위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을 활용하고 지역적 유대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주)